

제주 떠나 다시 서울행... 10년 만에 '탈제주'

지난해 제주→서울 10명 순이동... 제주살이 주춤 인구 역유출 증가에 도내 집값 영향... "약세 지속"

투자 가치와 부동산 가격 부담 등의 이유로 이주민들의 탈 제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제주를 떠나 서울로 유출되는 인구가 2009년 이후 10년 만에 반등하며 제주살이의 매력력이 점차 퇴보하고 있다.

17일 부동산정보서비스업체 직방이 통계청의 인구이동 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에서 서울로 순이동(전입-전출)한 인구는 10명이다. 이는 2009년(623명) 이후 처음으로 서울로 전입한 인구가 제주에 이주한 인구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열풍'이 불며 급증했던 제주 인구가 최근 감소세를 돌아서며 제주

살이에 대한 열망도 점차 사그라들고 있는 모양새다. 더불어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정착 오를 대로 오른 탓에 정착 젊은 층의 유입을 막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더 문제다.

앞서 2010년 이후 은퇴 노년층의 제주살이와 국제학교 입학에 위한 서울 강남권 거주자의 제주살이가 하나의 유행으로 번지며 서울에서 제주로 인구가 순유출 되는 현상이 지속됐다. 특히 중국 자본의 대거 유입으로 제주지역 건설경기가 활성화하고, 유관산업도 파생되며 2015년에만 서울에서 제주로 이주한 순 유입인구는 최고 4083명에 이르렀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미

사일방어체계) 사태로 중국에서 발효된 한한령과 함께 급격히 상승한 주택가격 등 부정적인 요인들이 가중되며 점차 순유입 인구 감소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에는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모두 1059명이 제주로 순유입 됐지만 지난해의 경우는 18명에 그쳤다. 학령기인 10~20세의 경우도 제주에서 서울로의 인구 순 유출은 2015년 96명 증가에서 지난해 221명 감소하며 그 격차를 키웠다.

탈 제주에 이은 서울로의 순 유출 증가는 도내 주택가격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 연간 최고 13.78%까지 상승했던 제주 아파트 값은 2019년 3.66% 하락하며 전국 평균(-1.43%)을 밑돌았다. 실제 제주시 노형동 소재 A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115㎡의 가격이 2017년 7월 11억1700만원에서 2년 만인 지난해 8월에는 8억3000만원으로 매매가격이 떨어졌다.

외지인 투자 비율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2012년 이후 제주 외 거주자가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20%를 넘었지만 지난해에는 15.7%에 그쳤다. 서울 거주자들의 매입 비중이 5.2%에 머물며 외지인의 매입 비중 감소에 영향을 줬다.

직방 관계자는 "인구 유출과 함께 제주 아파트 시장의 약세는 당분간 지속할 전망이다"이라며 "제주2공항 건설과 한한령 해제 등의 긍정적인 요인도 있지만 아파트보다는 토지시장 중심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단기간 내 제주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보인다"고 진단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대책본부 운영

제주시, 78개 분야 지원

제주시는 17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어려움 해소와 시민체감형 경제정책 추진을 위해 경제위기 극복 지원대책본부를 구성 상반까지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지원대책본부는 시장을 본부장으로 경제·관광·1차산업·안전 등 7개 분야 지원반으로 구성해 분야별로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3단계에 걸쳐 추진된다.

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 급감 및 소비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야별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1단계로는 현장 중심의 진단과 처방을 중심으로 예산범위내 실천가능한 경제시책을 마련 즉시 시

행하고, 2단계로는 예산확보가 필요한 경제시책은 예산조정과 추경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3단계로는 중·장기적 경제위기 대응방안으로 제도개선 과제 등을 모색한다.

이에따라 오는 21일까지 분야별 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고 이달 28일까지는 제주시 경제위기극복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예산·비예산 사업 상관없이 분야별 정책 방향에 맞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정 예산 조정과 추경·기금·예비비 등 추가예산 필요사업 등을 총괄 검토하게 된다.

고희범 제주시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숙한 시민의 힘으로 확진자 제로의 청정제주를 지켜온 것처럼 경제위기도 시민과 함께 하나된 힘으로 극복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약취관리지역 추가 지정... 등급별로 점검

도, 약취관리 종합계획 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약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를 등급별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원다발 및 약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약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고시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축산약취저감 효과를 지역주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약취관리지역 관리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보면 약취관리지역 지정 농가에 대한 지도 단속 실효성 확보를 위해 2018년 약취관리지역 지정 양돈농가(57개소)에 대해 등급별(Ⅰ-Ⅲ급, 중점관리)로 차별화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약

취 취약시기(6-9월) 및 민원다발지역에는 무인 원격 약취 포집기를 활용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또 5월부터 10월까지의 마을 축산환경감시단을 지속해 운영한다.

약취관리지역 미지정 농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다발 및 약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 약취관리지역 등을 추가로 지정 고시한다.

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약취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한림읍 약취관리지역 양돈농가·주변마을 약취실태 조사 및 농가별 약취저감 기술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칭' 제주약취관리센터 지역사무소(한림읍) 설치·운영한다. 제주약취관리센터는 약취관리지역 약취실태조사 검사신뢰도 확보를 위해 사전통보방법을 개선할 방침이다. 고대로기자



거센 파도를 피해... 17일 제주시 한림읍 옹포천 일대에서 갈매기들이 무리 지어 거센 파도를 피해 휴식을 취하고 있다. 이상국기자

무색 페페트병 별도배출 시범 재활용도움센터 수거함 설치

제주특별자치도는 환경부의 무색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도내 재활용도움센터에 무색 페트병 별도 수거함을 설치하고 오는 3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제주를 비롯해 서울, 부산, 천안, 김해 등 전국 5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무색 페트병 전용 수거함을 설치해 다른 플라스틱과 섞어 배출·수거되고 있는 무색 페트병을 별도배출·별도수거해 처리할 계획이다. 또 시범사업 참여 의사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을 개정해 공동주택은 올해 하반기부터, 단독주택은 2021년부터 무색 페트병 별도배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제주도도 의무화 시기에 맞춰 클린하우스까지 페트병 별도배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시트(Sheet), 의류용 잠성유 등 고품질로 재활용되는 페페트병은 생산량 대비 10% 불과하다. 나머지 90%를 차지하는 중·저품질 페트는 노곤, 단섬유 등으로 재활용 된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제주형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나선다

도, 물 정책사업 145억 투입 지하수 수질 관리 등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지속가능한 지하수 이용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 물정책 사업에 145억원을 투입한다.

제주도는 2020년 제주 물정책사업에 14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통합물관리체계 구축, 지하수 총량관리, 물산업 육성 및 빗물이용 물순환 시스템 확대, 지하수 수질관리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17일 밝

혔다.

주요 추진사업을 보면 제주형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지하수 관측망 운영,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확대 운영에 41억원을 투입해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수 감시·관측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하수 관정 이용실태 조사, 미사용 방치공 원상복구 및 지하수 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14억원을 투입해 지하수 총량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융합해수산업화 지원센터 운영지

원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 등에 47억5000만원을 투입해 대체 수자원 활용 및 안정적 수자원 보전·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특히 최근 지하수 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 수질전용측정망 구축, 지하수 오염차단 그라우팅 사업 확대, 행정수도 수질검사 강화 등에 31억 5000만원을 투입, 먹는 물 수준의 지하수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또 용천수의 가치 극대화를 위해 5억원을 투입, 용천수 친환경적 활용방안을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자전거, 전문가에게 배워요" 그린자전거 교실 참가 모집

제주도는 올해 3월부터 '그린자전거 교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그린자전거 교실은 도민들의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친환경 생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이다.

운영은 3월부터 11월까지 총 5기로 나눠 이뤄지며, 기별로 30명씩, 총 1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가운데 4기는 제주도 남동부 소재 제주시민복지타운 녹지공원 및 광장에서, 1기는 서귀포시 월드컵경기장에서 운영한다.

교육은 전문강사의 지도 아래 자전거의 이해 및 안전교육, 도로주행 방법, 관련 법규 등 이론과 실기가 병행된다. 교육시간은 매주 월·수·금·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까지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만 18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문의 제주도 환경정책과(710-6014)

송은범기자 seb119@ihalla.com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고등학교 25대 총동창회장



오진선

제주고등학교 25대 총동창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원 목 회
회장 양정윤 외 회원일동

축
CONGRATULATIONS

수 상

2020년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상



김원희
(함덕리 새마을부녀회장)

2020년 창조문학 시부문 신인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김영생

축
CONGRATULATIONS

취 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



강승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경영기획본부장/상임이사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형 제 일 동

축
CONGRATULATIONS

당 선

북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홍희근

제16대 북제주새마을금고 이사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한림리사무소 이영호 이장 외 리민일동
한림리노인회 장일준 회장 외 회원일동
한림리부녀회 김정아 회장 외 회원일동
한림리청년회 이상민 회장 외 회원일동**